

# 한국축구 월드컵 사상 첫 3위

## ■ U-20 여자월드컵

## 지소연 결승골... 콜롬비아 1대0 꺾어 FIFA 주관 남녀대회 통틀어 최고성적



(지소연)

‘지메시’ 지소연(한양여대)을 앞세운 ‘태극소녀’들이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세계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3위를 차지하며 한국 축구사를 새로 썼다.  
 최인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축구 20세 이하 대표팀은 1일 독일 빌레펠트에서 벌어진 2010 국제축구연맹(FIFA) U-20 여자월드컵 콜롬비아와 3-4위전에서 득점 골잡이 지소연이 천금같은 결승골을 터뜨려

1-0으로 짜릿한 승리를 낚았다. 이로써 한국은 남녀 각급 대표팀을 통틀어 건국 이후 최초로 FIFA 주관 국제대회에서 세계 3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했다.  
 한국축구는 남자 대표팀을 포함해 1983년 멕시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FIFA U-20 월드컵)와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이어 세 번째 4강에 올랐지만 모두 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3-4위전에서도 이긴 것이 처음이다.  
 이날 결승골의 주인공인 지소연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무려 8골을 몰아치며 세계적인 스타로 확실하게 떠올랐다.  
 지소연은 개최국 독일의 간판 스트라이커인 알렉산드라 포프(9골)에 1골 못미쳐 아쉽게 득점 2위에 그치며 골든슈를 놓쳤다.  
 경기전 “조직력으로 콜롬비아의 공격을 차단하고 반드시 3위를 차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던 최인철 감독은 변함없이 4-4-2 전형을 들고 나왔지만 간판 골잡이인 지소연의 파트너로 정해진 대신 권은숨을 투입해 공격 루트의 변화를 꾀했다.  
 좌·우 날개에 김진영과 이현영, 중앙 미드

필더에 김나래와 이민아를 변함없이 투입한 한국은 포백라인 좌우에 정영아와 서현숙, 중앙수비수는 주장 김혜리와 임선주가 나왔고 골문은 문소리가 지켰다.  
 양팀의 경기는 초반 신중한 탐색전으로 시작했다.  
 한국은 전반 5분 김나래가 중거리슛으로 포문을 열었으나 10분여가 지날 때까지 팽팽한 양상이 이어지며 중원 주도권 다툼에 집중했다. 조금씩 볼 점유율을 높여가던 한국은 전반 15분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콜롬비아 진영 왼쪽에서 얻은 프리킥에서 전문 키커 김나래가 찬 공을 이민아가 뛰어 들며 왼발로 살짝 방향을 틀었으나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걸리고 말았다.  
 전반 36분에는 아크 정면에서 30여m 지점에서 얻은 프리킥을 김나래가 오른발로 감아찬 슛이 골문 왼쪽으로 정확하게 떨어졌지만 포레로 골키퍼가 또 눈부신 편칭으로 막아냈다.  
 한국은 전반전에 슈팅 8개를 날려 골문을

U-20 여자월드컵 3·4위전  
 대한민국 1 vs 0 콜롬비아

향한 유효 슈팅이 5개나 됐지만 콜롬비아는 경고를 3개나 받으며 수비에 급급해 단 1개의 슈트도 날리지 못할 만큼 일방적인 경기였다.  
 후반들어 ‘여고생’ 전은하와 유일한 실업팀 소속인 정혜인을 연속 투입한 한국은 마침내 기다리던 첫 골을 터뜨렸다.  
 후반 4분 미드필더에서 넘어온 공을 아크 정면에서 잡은 권은숨은 감각적인 오른발 아웃사이드로 수비수 키를 넘는 로빙패스를 찰렸고 순식간에 공간을 파고든 지소연이 한번 점을 뒤 뛰어나온 골키퍼 오른쪽으로 가볍게 밀어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문전 단독 찬스에서 19살이라는 어린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한 골 결정력이었다.  
 실점 만회에 나선 콜롬비아는 수비 밀집 대형에서 벗어나 한국 문전으로 공세를 취했지만 한국 포백라인은 뚜렷한 공격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후반 26분에는 콜롬비아 진영 왼쪽에서 얻은 코너킥 찬스에서 교체 투입된 정혜인이 뛰어들며 강력한 헤딩슛을 날렸으나 아쉽게 크로스바를 살짝 넘어갔다. /연말뉴스



1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서 KIA 이종범이 7회초 김광현을 상대로 솔로홈런을 터트린 뒤 그라운드를 돌며 환호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이종범의 힘



## 괴물 김광현에 솔로포 포함 ‘나홀로’ 3타점 SK에 2연승...프로 통산 24번째 700타점

‘백전노장’ 이종범이 ‘괴물’ 김광현을 무너뜨렸다.  
 KIA 타이거즈가 1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16차전에서 나홀로 3타점을 기록한 이종범을 앞세워 7-0으로 2연승을 올렸다.  
 2회 첫 타석에서 2타점 적시타를 기록했던 이종범은 2-0으로 앞선 7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팀의 승리를 결정짓는 해키포를 쏘아올리며 SK의 괴물투수 김광현에게 패전의 멍에를 안겨줬다.  
 이종범에게 못매를 맞은 김광현은 이날 패배로 2008년 4월10일부터 이어온 KIA 상대 연승 기록을 ‘10’에서 마감했다.  
 김광현과의 마운드 맞대결에 나선 로페즈는 7회까지 5피안타 무실점의 호투를 선보이며 16번째 선발 도전 끝에 시즌 2승째를 올렸다. 지난 4월3일 롯데와의 경기 이후 120일만의 승리다.  
 1회초 1사 3루의 찬스에서 득점을 올리지 못했던 KIA가 2회초 상대의 실책으로 다시 한번 득점 기회를 맞았다.  
 김상현이 유격수 김현준의 실책으로 걸어나간 뒤 나지완의 볼넷이 나오면서 무사 1-2루. 안치홍의 희생번트로 2-3루를 만들었지

만 차이목이 삼진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종범이 좌측 담장 맞추는 커다란 타구를 날리며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첫 타석에서 2타점을 챙긴 이종범은 프로야구 통산 24번째로 700타점 고지를 밟았다.  
 2-0의 박빙의 리드가 이어지던 7회초 이종범을 시작으로 KIA 타선이 대폭발했다. 선두타자로 나온 이종범이 김광현의 체인지

업을 잡아당겨 우측 담장 넘어가는 솔로홈런을 터트렸다. 시즌 3호.  
 이종범에 이어 타석에 들어선 이용규도 김광현의 직구를 공략해 시즌 3호포를 장식하며 4-0을 만들었다. KIA의 공세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투아웃 이후 최희섭과 김상현이 연속안타를 합작하며 김광현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김원섭은 바뀐 투수 이승호를 상대로 중전안타를 기록하며 5-0을 만들었다.  
 KIA는 8회에도 투아웃 이후 이용규의 볼넷에 이은 김선빈·채종범의 연속안타로 2점을 보태며 승부를 결정지었다.  
 올스타브레이크 이후 사직과 문학을 찾아 롯데·SK 두 난적과의 대결을 벌인 KIA는 원정 5경기에서 4승을 수확하며 4강 싸움에 속도를 내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는 경험 많은 투수가 적은 양키스 불펜에서 노련한 투구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29경기에서 2승1패 평균자책점 5.60으로 부진했다.  
 2차레 세이브 찬스가 있었으나 모두 날려 불펜세이브 2개를 기록했다.  
 박찬호는 “슬프지만 어쩔 수 없다. 비즈니스다”면서 “선수 생활을 접기 전에 양키스에서 즐거운 경험을 해봤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몇년 더 뛸 수 있기에 다른 팀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 난 여전히 공을 던질 수 있다”며 다른 팀에서 계속 현역으로 마운드에 서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연말뉴스

## 박찬호 “슬프지만, 선수생활 더...”

### 양키스 방출 충격

박찬호(37)가 트레이드 마감일인 1일(한국시간) 소속팀인 뉴욕 양키스의 대대적인 선수 보강에 맞춰 유턴을 맞고 사실상 방출 통보를 받았다.  
 양키스 구단과 AP통신은 1일 클리블랜드에서 오른팔 케리 우드(33)를 데려오면서 박찬호를 방출 대기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박찬호는 앞으로 열흘이내에 마이너리그행을 받아들이거나,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하고 새 동지를 알아봐야 한다. 통산 27번이나 월드시리즈 정상을 밟았던 양키스에서 생애 첫 우승반지를 꿈꿨던 박찬호의 도전도 이로써 막을 내렸다.  
 지난 2월 스포팅캠프 개막을 앞두고 양키스가 1년간 기본 연봉 120만달러, 보너스 30만달러 등 총 150만달러에 계약했던 박찬호



**GOLFZON**  
 THE GOLFZON  
 광주 최고시설 스크린골프장  
 자이언트골프존  
 100% 스크린골프